

# 흔들리는 리비아 ————— 石油不況, 엑슨의 철수.....

지금 리비아經濟는 중대한 難局에 처해 있다. 昨年 11 月, 여러 해에 걸쳐 操業을 해온 美国의 石油会社 엑슨이 리비아로부터의 철수를 발표했다. 지난해 12 月 리비아가 暗殺團을 派遣했다는 情報에 態度를 硬化시킨 美国이 对리비아 制裁措置을 實施한 것이다. 그리고 世界的인 石油需要減退와 原油高價格維持 政策에 의한 産油量의 激減, 그것에 따르는 外貨獲得의 어려움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 1. 엑슨의 撤収

今年 1 月, 그동안 철수를 위하여 리비아 政府와 交渉을 계속하여 온 엑슨이 리비아 国内의 全資産을 리비아 国营石油会社에 売却하는데 合意함으로써 작년 11 月에 發表된 엑슨의 철수가 正式로 확정되었다.

엑슨 철수의 發表는 지난해 12 月 12 日 뉴욕의 엑슨本社에서 突然 行해졌다. 同社는 리비아에 있는 石油利權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同国에서의 모든 操業으로부터 철수한다.

철수의 이유로는 몇 가지가 생각된다.

첫째는 經濟的 理由이다. 리비아 政府의 資源保存 政策 때문에 엑슨에 許容된 生産上限이 '80 年の 13 万 5,000bbl/d에서 '81 年 여름까지에 9 万 bbl/d로 削減됐다. 더우기 石油需給緩和의 影響을 받아 高價格政策을 취한 리비아原油에 대한 需要는 급속히 떨어졌다. 철수를 발표하기 수개월 전에 엑슨은 리비아 원유의 거래를 中止하였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또 利權原油를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最近에는 費用의 上昇으로 배럴당 3 달러의 赤字를 보게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둘째는 美国의 레이건政權의 压力說이다. 美国·리비아關係는 레이건政權의 登場과 함께 더욱 악화되었다. 철수發表 3 개월전, 昨年 8 月에 일어난 美軍機에 의한 리비아機 擊墜사건은 이것을 象徵하는 것이었다. 엑슨의 철수가 레이건 政權의 직접적인 압력에 의했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一連의 움직임과 無關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第3의 理由로는 리비아의 政治体制과의 摩擦이다. 가다피 大統領의 아주 過激하고도 理想主義的인 政策은 자주 内外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 마찰의 하나가 住宅問題이다. 리비아에서는 一 가족 一住宅 制度가 導入되어 있다. 그러나 住宅難이 원인이 되어 外国企業의 住宅을 占拠하는 事件이 頻發하여, 이것에 外国企業은 애를 먹고 있다. 엑슨의 従業員 가운데도 住宅을 잃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엑슨은 부레가에 LNG플랜트를 所有하고

있었다. 이것은 '73~'74년의 51% 国有化의 対象에 들어가지 않은채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리비아政府는 '80年 中半경에 同플랜트의 51% 国有化의 意向을 보이고, 또한 가스價格에 대해서도 兩者間에 對立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結局 엑슨 철수의 最大의 이유는 以上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麻煩을 고려하고 經濟的인 判斷과 리비아原油에의 依存度가 낮은 메이저라는 엑슨의 強한 立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엑슨의 철수는 리비아의 石油 生産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까?

리비아에서 操業하는 石油会社 가운데 엑슨의 資本이 들어있는 것은 엑스·스탠다드와 엑스·실트의 2社이지만 79年의 全産油量에서 차지하는 兩社의 비율은 겨우 9.5%에 불과하다. 따라서 當面의 生産水準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技術面에의 影響이다. 엑슨 철수로 婦國이 予想되는 美國人 技術者는 약 400名이라고 보여지며, 外國人 技術者에 크게 의존하는 리비아에서는 短期的으로는 技術的 困難에 직면할 경우도 예상된다.

그러나 리비아의 石油産業은 이미 技術者를 포함하여 1萬名의 從業員을 넘는데까지 成長하여 왔다. 더우기 美國人이 철수한 後에도 西歐의 技術者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中·長期的으로는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엑슨의 철수라고 하는 事件에 限하여 보면, 리비아의 石油生産에 미치는 影響은 當초 염려한 만큼 深刻한 것은 아니다.

## 2. 美國의 對리비아 制裁

가다피 대통령이 美國에 暗殺團을 보냈다고 하는 情報를 美國 言論이 報道하기 시작한 것은 엑슨의 철수가 發表된 직후인 지난해 11月 下旬이었다. 그 後 가다피 대통령이 이것을 否定, 對美姿勢를 硬化시킨 것에 대하여 美國務省은 곧바로 聲明을 發表 明確한 証拠를 가지고 있다고 이에 반박했다.

이러한 應酬가 절정에 達한 11월 10日 美國의 클라크 國務차관이 ① 在리비아 美國人에 대한 即時 婦國勸告 ② 리비아 旅券發給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이 聲明은 結局 전해지고 있는 暗殺團派遣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하지 않고 在리비아 美國人이 절박한 危險에 처해 있다고 하는 點만을 強調한 대체로 說得力이 약한 內容이었다.

大義明分은 어쨌든 美國의 참된 目標은 무엇이었

을까? 가장 一般的으로 추측되는 것은 親蘇·反美의인 리비아에 대한 警告說이다. 그리고 今年 4月에 시나이半島返還의 期限을 앞두고 對이스라엘 強硬策을 취하는 리비아를 牽制한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美國의 참된 뜻이었다면 그 外交政策은 확실히 稚拙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國의 對리비아 強硬姿勢는 오히려 리비아를 蘇聯에 접근시키는 效果를 가지고 있다. 美政府의 婦國勸告를 받고서 리비아에서 操業하는 美國系 石油会社의 多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姿勢를 명확히 했다. 이번의 婦國勸告는 旅券發給중지 등의 法的 措置를 수반하기 때문에 8月의 리비아機 擊墜事件에서 나온 婦國勸告보다도 強硬한 것이었다. 따라서 石油 各社도 이것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리비아에서 操業하는 美國系 石油会社의 多數는 獨立系이고 리비아原油에의 依存이 一般적으로 높다. 婦國勸告에는 應하더라도 리비아에서의 操業중지 혹은 철수라고 하는 事態는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石油各社가 美國人 技術者의 欠員을 西歐人으로 補充하고 非美國人 社員만으로 操業을 계속하여 갈 것을 表明하고 있는 裏面에는 이러한 事情이 있다. 그리고 石油 各社가 어디까지나 操業을 계속할 姿勢를 흐트리지 않으면 리비아로부터의 美國人婦國에 관계없이 리비아에 있어서 打擊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더우기 美國의 強硬措置를 無力化시키는 것은 西歐諸國의 對應이다. 프랑스 政府는 지금까지 惡化된 리비아와의 關係를 正常化할 用意이 있다고 發表하여 은근히 美國의 強硬政策을 非難했다. 英國, 이탈리아도 각각 外相이 리비아와의 關係를 修正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表明하여 美國에의 同調를 拒絶했다.

또 OPEC諸國 가운데서도 리비아支援를 주장하는 나라가 많다. OPEC總會의 席上에서도 이라크 알제리, 이란등 8개국은 이 問題를 總會의 議題로서 다룰 것에 찬성했다. 結局 사우디아라비아의 反對로 이 問題는 「政治問題」라는 이유로 議題로 다루지지는 않았지만, 그 後 알제리,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의 4개국은 公式의으로 技術援助의 提供을 申請했다.

리비아는 작년 가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國交回復을 實現한 뒤를 이어 今年에 들어 와서는 시리아 알제리와의 合邦호소, 가다피대통령의 알제리, 튀니지 訪問, 이집트 무바라크 新政權과의 關係回復努力 등 積極的인 外交攻勢로 나오고 있다.

美國의 強硬策은 리비아에 대하여 效果的인 一擊을 가할 수 없었다.

### 3. 石油不況

世界的인 石油需給 緩和와 리비아의 高價格維持 政策 때문에 리비아의 産油量은 급격히 떨어졌다. (第一表 参照)

이에 따라 리비아의 外貨事情이 점차 악화되게 되었다.

작년여름 리비아 中央銀行이 1週間에 걸쳐 모든 外貨支払을 중단한 적이 있다. 中央銀行은 이것이 事務절차상의 措置였다고 설명했지만, 現地 金融當局의 見解는 外貨困難이라는 點에 一置하고 있다.

또 11월에는 리비아가 유로市場으로부터 2억 달러의 資金을 導入했다고 전해져서 본격적인 外貨困難을 짐작케 했다. 아무래도 이것은 國內의 資金融通으로 둘러지는 것으로는 안될 것이지만, 外貨事情의 惡化에 對한 内外의 關心은 확실히 높았다.

다가오는 外貨困難에의 對策法으로서 리비아 政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 1월부터 시작된 第2次 5個年計劃의 프로젝트 가운데 重要性이 낮은 것에 대해서 計劃을 늦춘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튀니지國境과 트리폴리를 연결 하는 170km의 鐵道가 1984년 完成을 목표로 交渉中에 있지만, 最終段階에 이르러 중단하고 있다.

더우기 리비아는 石油 바터去來를 考慮中에 있다. 이미 實施중인 蘇聯 외에, 印度·이탈리아 등 과도 石油바터去來가 交渉中에 있다. 상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原油價格은 公式價格보다 7~8% 割引하는 조건으로 最近 바터去來가 成立했다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리비아 政府가 外貨事情의 惡化를 심각하게 받아내는 것을 의뢰받는 것은 國營 슈퍼마켓의 輸入物資流入制限이다. 리비아에서는 個人商店이 廢止됐기 때문에 商品의 流通은 전부 國家管理下에 있어 리비아 政府는 國內에서 生産可能한 物資를 中心으로 광범한 輸入制限措置를 實施했다.

그래서 약간의 前提下에 '81年 下半年期 및 '82年 上半年期의 貿易收支를 推定하여 보자(表2 参照).

'82年 上半年期의 産油量은 80萬bbl/d로 추정했다. 작년 12월에는 利權原油에 대한 割引 實施에 의해 100萬bbl/d까지 産油量을 回復했지만 이 措置가 작년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産油量은 다시 低下한다고 보았다. 價格을 35달러/bbl로 한 것은 現在 이미 現物市場에서는 公式價格을 1달러 以上 下回하는 價格으로 去來되고 있다는 것, 石油需要의 弱화가 今年 後半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勘案한 結果이다.

試算結果는 '81年 下半年期의 貿易收支가 18억 달러

赤字, '82年 上半年期가 35억 달러의 赤字로 추정된다. 貿易外 및 移轉收支는 過去의 推移로 보아 대략 20억 달러의 赤字가 예상되기 때문에 '81年의 經常收支는 대강 均衡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리비아의 外貨準備은 80年末에 약 130억 달러였다. '81년에는 겨우 이 水準을 維持했다고 하더라도 今年 上半年期에는 45억 달러가 넘는 經常收支 赤字가 예상되어 리비아 經濟는 더욱 困境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表1) 리비아의 産油量

(單位: 1,000bbl/d, %)		
	産油量	前年(同月)比
1979年	2,056	3.2
1980年	1,785	△ 13.2
1981年 1月	1,600	△ 23.8
2	1,650	△ 21.4
3	1,590	△ 20.5
4	1,600	△ 8.6
5	1,400	△ 17.6
6	1,100	△ 35.3
7	750	△ 55.4
8	600	△ 64.5
9	600	△ 64.3
10	700	△ 58.0
11	750	△ 55.4

資料: OGJ, PIW 各号

(表2) 리비아의 貿易收支動向(試算)

	(單位: 億달러)				
	1979	1980	1981		1982
			上	下	上
輸 出	152	226	107	46	44
輸 入	82	98	65	64	79
貿易收支	70	128	42	△18	△35

자료: Direction of Trade, 各号

注: 試算의 前提는 以下 그대로이다.

1) 原油輸出額을 總輸出額으로 간주한다.

2) 內需은 10萬bbl/d로 한다.

3) 産油量, 原油輸出價格(달러/bbl)

	81. 7~10月	81. 11月	81. 12月	82年上期
産油量	70萬 b/d	75萬b/d	100萬b/d	80萬b/d
價格	39.6	37.2	36.2	35.0

4) 輸入은 81年下期, 82年上期 모두 前年同期比 20%增으로 한다.

이러한 장래에 대한 어두운 展望을 反映하여 리비아의 '82年 新年度予算은 緊縮予算으로 짜여졌다. 특히 開發支出은 前年比 약 5% 減少하여 리비아가 正面으로 石油不況에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財政收入의 90% 以上을 石油收入에 의존하고 있던 리비아로서는 石油收入 減少가 예상되는 以上 支出削減도 부득이하다는 判斷에 의한 것일 것이다.

### 맺음말

이 予算削減措置가 開發支出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동안은 아직 리비아 經濟 나아가서는 가다피政權에 余裕가 있다. 이것이 經常支出에 영향을 미치고 特別會計로 되어 있는 軍事支出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가다피政權의 基盤은 一挙에 무너

질 可能性이 생긴다.

앞으로 가다피政權의 政策運營에 있어서 注意를 요하는 것은 原油價格 政策에 어떻게 柔軟한 姿勢를 보일까, 결국 예를 들어 公式販賣價格은 보류하더라도 때에 따라 彈力的인 價格運營이 가능할까 아닐까 하는 문제이다. 價格을 引下하면 아직 去來 상대가 있다는 것은 12月의 措置에서 証明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柔軟한 外交政策이 展開될까 하는 것이다. 美國과의 惡化된 關係가 그만큼 간단하게는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른 아랍·이슬람諸國, 아프리카諸國, 나아가서는 西歐諸國과의 柔軟한 外交展開가 必要하다.

石油의 힘이 弱화됐을 때야말로 가다피政權의 安定性이 試驗받는 때인 것이다.

(“石油と石油化学” 3月号에서)

### ☒ 参考統計資料

#### 82年初 OPEC 産油国 財政 및 産油量 現況

(單位：千B/D)

国 別	財政規模 (單位：10억\$)	財政均衡達成 위 한 必要産油量	現産油量	予想産油量
사우디아라비아	161.6	6,410	7,900	7,550
리 비 아	33.4	1,070	870	1,310
쿠 웨 이 트	76.2	900	850	1,310
아랍에미레이트	38.6	810	1,400	1,120
카 타 르	16.1	60	360	210
小 計	325.9	9,250	11,380	11,500
Non Discretionary Producers				
이 란	3.0	3,610	950	1,600
이 라 크	31.8	2,110	950	1,200
나 이 지 리 아	4.5	2,230	1,800	1,500
알 제 리	3.8	1,200	700	1,100
가 봉	0.7	160	150	190
베 네 수 엘 라	7.7	2,400	2,100	2,100
에 콰 도 르	0.7	220	200	210
인 도 네 시 아	10.0	1,500	1,600	1,650
小 計	62.2	13,430	8,450	9,550
總 計	388.1	22,680	19,830	21,050

\*PIW 推定値 資料：PIW February 15, 1982.